

유가 120달러 돌파 ... 국내경제 '패닉'

올들어서만 20달러 ↑ ... 물가 압박 가중 무역수지 이어 경제 성장률까지 까먹어 정부 "특별 대책 없다" ... 서민가계 '신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이 마침내 6일 배럴당 120달러(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를 넘어 세계 경제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이미 연초부터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등 물가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던 원유가격은 이제 무역수지에 이어 경제성장률까지 갉아먹고 있다. 물가압박을 몸으로 견뎌야하는 서민들의 신음은 커지고 있다.

◇올들어서만 배럴당 20달러 이상 올라=우리나라 주도인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중동산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말만 해도 배럴당 89.30달러였지만 이달 5일에는 109.77달러까지 21.47달러나

치솟았다. 투기적 요인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다보니 수급에 기초한 전문가들의 유가전망은 무의미해졌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선에 근접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120달러를 뚫었다.

◇경제 전반에 충격 ... 물가 압박=올해 들어 주요 경제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유가충격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는 1월 3.9%를 기록한 데 이어 4% 가까이에서 움직이다 4월에는 드디어 4.1%로 3년8개월만에 4%선을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품목별 기여도 분석내용을 보면 경유(0.36%), 휘발유(0.36%), 급반지(0.28%), 도시가스(0.



25%), 등유(0.17%), 전세(0.15%), 사립대 납입금(0.12%), 자동차용 LPG(0.11%)으로 유가충격이 그대로 소비자물가에 전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수입물가의 충격은 더 심각하다. 3월 수입물가 상승률(원화기준)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8.0%에 달해 9년9개월만에 최고치였다.

무역수지 역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원유수입액이 40~50%씩 늘어나면서 올해들어 4월까지 넉 달 내리 적자를 기록, 누적적자가 60억 달러에 육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에따라 당초 5.0%였던 경제성장 전망치를 4.7%로 내리잡은 데 이어 LG경제연구원은 4.9%였던 전망치를 4.6%로, 금융연구원은 4.

8%였던 전망치를 4.5%로 각각 낮췄다.

◇"요인이 없다" =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이다.

어차피 전체 원유의 절반 가량을 쓰는 산업분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

결국 가정, 상업용 등 여타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캠페인' 이상의 성격을 갖기 힘든데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억제가 가파르거나 하향 곡선을 그리는 국내경제를 주름지게 하거나 다른 정책목표와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전제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안중 오는 2011년까지 가정까지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기로 했던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나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료 50% 감면책을 포기한 것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환율 1,000원대 고착

2개월래 최고 ... 서민 경제 '빨간불'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010원 선에 안착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고유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행진 등으로 환율이 전 고점인 1,030원 선을 목표로 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 상승으로 수출 대기업은 안도할 수 있게 됐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는 상승 폭이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서민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환율 1,010원대 급등 ~ 2개월래 최고 =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4.90원 급등한 1,01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이후 5거래일만 18.50원 급등하면서 지난 3월 17일 1,029.20원 이후 두달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사의 달러화 결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고점 경신 시도 전망 ~ 물가 불안 우려 =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수급 변화와 정책 변수 등으로 한동안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달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고유가 여파로 적자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유가가 10% 오르면 지난해 무역역률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최대 80억 달러 악화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점진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 고점인 1,030원 부근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 10% 상승시 수출이 각각 1% 가량과 2.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 것처럼 환율 상승은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에는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서민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 소비자물가 4.1%로 상향

KDI, 최악의 경우 상승률 4.6% 예상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로 예상했던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1%로 크게 상향조정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악의 경우 4.6%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6일 '최근 물가상승세의 원인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수입물가와 환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총수요 압력이 서서히 소멸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 근원물가 상승률은 3.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올해 경제 전망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8%로 전망했었다.

KDI는 그러나 수입물가와 실효환율이 각각 5%씩 추가로 급등하고 총수요

압력이 1% 내외로 지속될 경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6%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통상 소비자물가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가와 실효환율, 총수요 압력 등 3개 요인의 1999년 이후 분기별 자료를 이용, 회귀분석을 한 결과 최근 발생한 20% 내외의 수입물가 급등, 10% 내외의 실효환율 상승, 1% 내외의 총수요압력이 물가를 각각 0.8%포인트, 0.5%포인트, 0.15%포인트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요인들은 1분기 정도까지는 시차를 두며 전분기 대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DI는 덧붙였다.



어떤 카네이션이 더 예쁠까
광주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오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6일부터 다양한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판매한다. 가격대는 5천~5만원선. (광주신세계 제공)

한전 등 90개 공기업 사장 민간인 선임

재정부 차관 "반드시 공모 절차 거칠 것"

기획재정부는 6일 90여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민간 전문가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전, 가스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은 민간 전문가로 뽑을 예정"이라며 "이들 기관을 '공모제 활성화 기업'으로 지정해서 반드시 공모 절차를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준에 대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대형 공기업, 연금 관련 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출연연구기관(49개 전부), 대학병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배 차관은 "공공기관운영에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침에는 '공모제를 한다'고 돼 있는데 대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대형 공기업, 연금 관련 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배 차관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모에 의해 공공기관장을 뽑았지만 낙산 시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공모에서는 정부 부처 간부들이 사전에 내정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앞으로 공공기관장 후보가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선임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인텔·대만TSMC 협력

'차세대 반도체' 규격 통일

2012년까지 '450nm 웨이퍼' 전환
메모리반도체 업계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 등 반도체 강자들이 '웨이퍼 키우기'를 통한 향후 시장재편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6일 반도체업계 1위 업체인 인텔과 반도체 수탁생산업체 1위인 TSMC(대만)와 함께 2012년까지 450nm 웨이퍼로의 규격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인 생산규격은 지난 2001년 300nm 웨이퍼 기반을 도입한 이후 11년 만에 450nm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웨이퍼란 반도체의 핵심소재로 모래에서 추출한 규소로 만들어진 둥근 원반 모양의 원재료다.

이 위에 회로를 입힌 뒤 절단해 각각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지름 길이가 크면 칩수록 칩 생산개수도 늘어난다.

웨이퍼 하나를 가공하면 수백개의 반도체 수백개가 나오며, 300nm 웨이퍼는 200nm 웨이퍼에 비해 생산량이 2.25배 높다.

따라서 300nm 라인 하나를 지으면 200nm 라인 2개 이상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R&D사업 군살빼다

20개 과제 탈락·기관 통폐합

정부예산에서 자금이 공급되는 연구·개발(R&D)사업에 대대적인 군살빼기가 단행된다.

정부는 진행중인 R&D사업 중간평가 결과 전체 과제의 20%를 강제 탈락시키고 R&D 관리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R&D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2천억 원 정도의 불필요한 R&D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 비용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조원이 넘는 방대한 R&D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들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미술관 계약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9	062-230-6202
휴먼전자(주)	품질보증 관리인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09	062-600-7522
포도양주	영업보조 및 상담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0	062-222-0945
피엔제이주	연구개발/인중 서비스 경영지도 경력직	대원졸/경력3년	2200~2400	05/10	062-972-3136
광주한독일코스	영업관리 배속 담당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10	062-512-1553
㈜오에이전자	총무부 정규직 여사원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5/10	062-971-4800
한국생협연대중앙물류센터	상담팀 고객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11	062-573-6505
상이엔탈	정규직 치과병원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2	062-652-7418
해주주택건설	주택건설 지재구매 및 견적 경력직원	초대졸/경력10년	회사내규	05/14	062-512-8871
LIG티스자동차서비스(주)	[광주]LIG매직카 사고현장출동 전담직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5/14	02-6201-2136
㈜미전자	무역 영업사무원(영어가능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14	062-602-7475
㈜남원	기계관련 사후관리(중국어가능자 우대)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5/16	062-225-9181
대방포스텍(주)	안드레김 LED조명연구소 연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5/16	062-973-8582
삼우기업	기계설비 용접 관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17	062-951-913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對日 무역적자 급증

정부 대책 불구 벌써 100억달러 돌파

대일 무역적자를 줄여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일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100억 달러를 돌파해 특별한 추세반전이 없는 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대일 무역적자는 102억8천900만 달러로 4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대일 무역적자가 92억4천20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적자규모는 작년보다도 10억 달러 이상 불어난 것이다. 아울러 최대 무역흑자지역인 유럽연합(EU)과 중국에서 거둬들이는 흑자의 합계(100억1천900만 달러)를 능가하는 것이다. 대일 적자가 늘어나는 데는 고도기술 부품이나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원인이 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사용한 철강 등의 품목 수입이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4월의 경우 20일까지 대일 철강품목 수입은 6억3천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2% 급증했으며 정밀화학제품(2억6천800만 달러)도 33.4%나 늘어났다.

'저도주' 잘 팔린다

웰빙바람 타고 포도주 등 매출 급증

포도주 등 알코올 도수가 낮은 저도주 소비가 대폭 증가해 술 소비에서도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일 국제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술소비량(출고량)은 329만kl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전체 소비량 중 주류별 점유율은 맥주 60.3%, 소주 29.3%, 탁주 5.2%, 과실주 1.9%, 위스키 1.1% 등이었고 주류별 소비량은 저도주 중 맥주(5.5%), 과실주(35.7%), 탁주(1.3%)는 늘어났지만 약주(22.4%), 청주(1.6%)는 감소했다.

수입주류의 소비량은 2005년 7만2천kl, 2006년 8만kl, 2007년 10만5천kl로 증가했고 수입주류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2.3%, 2006년 2.5%, 2007년 3.2%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맥주 소비량은 198만3천kl로 5.5% 증가했고 성인 1명의 맥주 소비량은 500ml 기준으로 2005년 101병, 2006년 102병, 2007년 107병 등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포도주 소비량은 3만8천kl로 2000년보다 2.5배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 처음 위스키(3만5천kl)를 추월했다.